

포토에세이 동구의 험덕고개와 뚝고개 흔적

두 고개의 그려 그 풍경

사진·글 유동현

포토에세이

동구의 혈떡고개와 똥고개 흔적

두 고개의 그려 그 풍경

사진·글 유동현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화도진문화원

그리운 고갯길의 따뜻함을 추억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난 2019년 송림초교지구와 송림동 대현지구의 재개발 전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은 『송림동 사라진 풍경의 기록』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인천 동구 이곳저곳에서는 재개발이 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아파트가 들어서고 넓은 길이 열리는 등 편리함이 뒤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고갯길을 걸으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 옛 정취가 가득했던 골목 풍경, 그리고 이웃 간의 정은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걸었던 돌계단, 낡은 대문과 바람에 삐걱대던 간판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부대끼며 함께 살았던 얼굴들은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 속에서만 남을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동구의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져가기 전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록은 곧 ‘역사’가 되는 것은 물론 먼 훗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유동현 (전)인천시립박물관 관장과 함께 송림6동 일대 ‘활터고개(헐떡고개)’와 송현3동·송림2동의 일명 ‘똥고개’ 일대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는 이 두 고개를 오래 전부터 오르내리며 다녔고 그 흔적을 20년 가까이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이웃들이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쌓인 기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비탈진 고개를 험떡거리며 넘었던 나날들, 그 길 위에서 만나 웃고 울었던 사람들, 골목마다 새겨진 흔적들이 개발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익숙했던 풍경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길을 오르내리며 보고 느꼈던 기억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오르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높은 아파트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일 것입니다.

화도진문화원은 이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 발자국이 남긴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이 책을 출간합니다. 비록 재개발로 인해 옛 풍경이 사라지더라도 그 흔적을 담아두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옛 풍경 중의 일부를 담았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지워진 뒤에도 이 길 위에 쌓인 시간과 정서가 잊히지 않기를, 그리고 그 고갯길을 걸으며 느꼈던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엮었습니다.

갈피 갈피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 작은 책이 그리운 고갯길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껴 보고 사라진 동네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장한 화도진문화원장

이제 헐떡거리며 고개 넘을 일이 없다

이리저리 휘어지고 깊게 파인 골목이 있었다. 큰 고랑과 작은 이랑이 이어지듯 울퉁불퉁한 고갯길이 있었다. 인천 동구에는 곳곳에 산동네가 있었고 고갯길이 마을을 서로 이어주고 있었다. 어느날, 그곳은 ‘불량’이란 딱지가 붙었고 포클레인의 삽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 터에 살던 사람들의 추억과 그 공간에서 먹고 잤던 기억은 쓸모없는 ‘폐기물’로 처리되었다.

얼마 전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의 일명 ‘헐떡고개’가 완전히 사라졌다. ‘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헐떡고개에 빼곡히 있던 436채의 집이 철거되었다. 푸근한 수평은 지워지고 냉랭한 수직이 세워지고 있다.

이 동네의 사라짐은 단순히 낡아 버린 마을이 하나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6.25 피난민들 삶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던 공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헐떡고개와 마주 보고 있는 송현3동의 일명 ‘똥고개’는 현재 이주 중이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들이 수두룩하다. 머지않아 집 앞의 조각난 시멘트 계단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길 잃은 길냥이들만 골목을 배회할 것이다. 빈터가 되기 전에 틈나는 대로 고갯길을 오르락내리락했다. 그곳의 먼지라도 찍을

수 있다면, 그때의 바람이라도 담을 수 있다면... 하는 조금함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수없이 서터를 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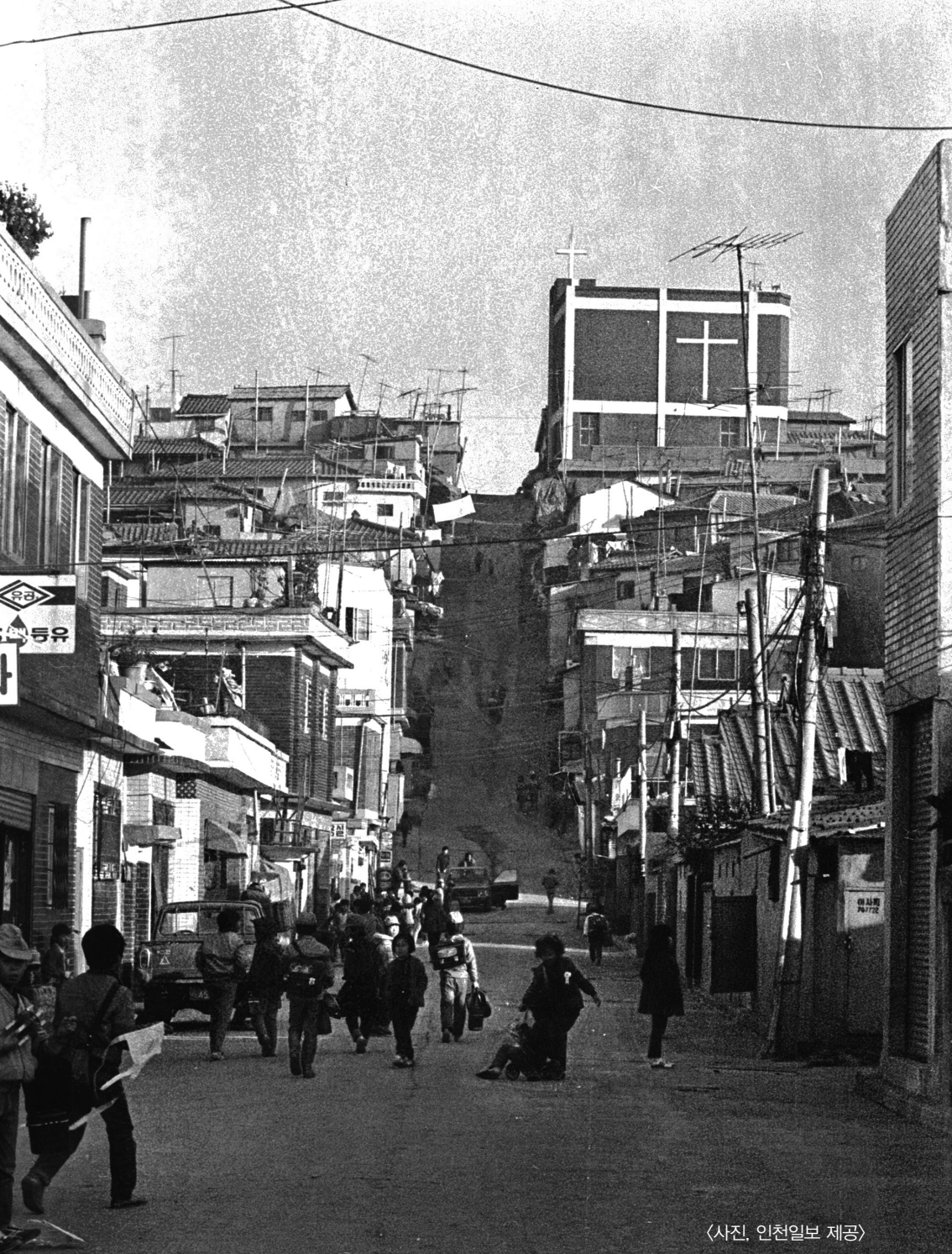
어렸을 적 가까운 친척들이 이 두 고갯길에 살았다. 둘째 작은아버지네는 동구 송현3동 뚝고개 중간쯤에 있었다. 셋째 작은아버지네는 송림동 혈떡고개 초입에 있었다. 수도국산 아래 공장 철길 마을에 살던 나는 지난 세월 두 고개를 자주 넘나들었다. 오랫동안 눈으로만 보아오던 이 마을들을 20년 전부터 카메라에 담았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을 담았고 빈 등지가 된 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삶의 생생한 흔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남게 되어 다행이다. 어느날 사람들은 ‘불량’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이다. 이 책이 그 허전함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동현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인천 동구 송림동에는 혈떡고개가 있었다

(1984년 모습)



〈사진, 인천일보 제공〉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을 뜻한다. 우리는 학교를 가던 일터로 나가던 매일 ‘고개’ 하나는 넘어야 했던 시절이 있다. 인천의 거의 모든 동네는 고개 하나 정도는 품고 있었다.

화도고개, 싸리재고개, 쇠뿔고개, 독쟁이고개, 조개고개, 주원고개, 앵고개, 붉은고개, 아나지고개, 징맹이고개, 장고개, 구루지고개, 사모지고개 등. 인천 곳곳에는 삶의 스무고개가 길게 이어져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는 ‘혈떡고개’가 있다. 가파른 언덕을 넘으며 혈떡거린다고 해서 ‘혈떡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 세월이 지나자 주민들은 이 이름이 싫어졌다. 굳이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을 소환시키고 싶지 않았다. 고개 이름을 ‘활터고개’로 바꿔버렸다. ‘혈떡’에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활터’를 끄집어낸 것이다. “오, 멋져” 있지도 않았던 ‘활터’ 운운하면서 작명해 버렸다.

해프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70년대 이 고개와 그 아랫동네는 한동안 궁현동으로 불렸다. 활터고개의 한자식 표기인 ‘궁현(弓峴)’이었다. 먹물 듬뿍 담긴 이름을 지어놓고는 뭐가 좀 이상하고 찜찜했는지 먹물도 마르기도 전에 고쳐버렸다. 송림6동으로.





이 고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다.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언덕에 솔단지를 걸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집 지을 자재가 없었다. 비바람을 피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땅을 파서 움막을 만들었다. 시내에 나가 포탄 맞아 부서진 집에서 이것저것 주워와 가짜스로 지붕을 세웠다.

이후 60년대 들어서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고개로 모여들었다. 형님이 와서 정착한 후 시골에 있는 동생들을 불러들였다. 방이 필요했다. 부부 방 위에 기형적인 다락방을 만들어 거처를 마련해 줬다. 한때 이 동네는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촘촘했다.





혈떡고개는 옛 대헌공고(재능고) 길 건너의 동구 송림4동과 송림6동 일대를 아울렀다. 예전에 개건너(가좌동) 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만나는 첫 번째 산동네였다. 이 언덕길 따라 여러 갈래의 골목이 나 있었고 다닥다닥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동네에서 몇 발짝 내디디면 주안염전 꼬트머리가 나온다. 송홧가루 날리는 봄이 되면 소금끼 품은 짠 바람이 마을로 불어왔다. 여름철 염전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가끔 어느 골목 누구네 집 아이가 염전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개 너머 다른 동네 애들이 염전으로 가려면 이 동네를 거쳐야 했다.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다. 주머니를 뒤져 ‘통과세’를 받거나 주먹세례를 주었다. 그래도 다른 동네 아이들은 여름철이면 이 동네에 다시 나타났다. 그만큼 당시 염전 놀이는 재밌었다.



천광교회는 혈떡고개 가장 꼭대기에 우뚝 서 있어 오랫동안 동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먼저 생기고 부설로 교육기관이 설립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천광국민학교’로 시작했다. 6.25 전쟁 직후 송림4동 29번지 일대의 땅 120평을 마련해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을 모 집했다.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강냉이죽(옥수수죽)을 쑤어 나 누어주기도 했다.

학교는 1959년 5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천광교회’라 이름으로 변경돼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이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현재 사라졌다. 재개 발단지 안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고 다시 십자가를 세울 것이다.





꼬불꼬불

비틀비틀

열기설기

와글와글

갈래갈래

울퉁불퉁

아웅다웅

웅기중기

오순도순

올망졸망

도란도란





다닥다닥, 오밀조밀 이웃집들이 딱 붙어 있다. 한 뼘조차 옆으로는 밀고 나갈 수 없다. 마당 없는 집일지라도 빛과 바람을 포기할 순 없다. ‘좁아터지게 살던’ 그들은 오매불망 하늘과 닿는 공간을 갖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빨래 말리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 햇볕과 바람을 찾아 나서야 했다. 골목에 빨래를 내다 걸기에는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다.



지붕 한 귀퉁이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손바닥만 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으로 오르기 위해 계단 혹은 사다리를 설치했다. 그 집에 ‘하늘마당’이 생겼다. 그곳으로 다다르는 계단과 사다리는 어쩌면 골목 집에서는 생존 도구였다. 어머니들은 빨래뿐만 아니라 고추도 말렸고 조그마한 장독대를 마련해 철 따라 장(醬)을 익혔다.



거의 모든 주택과 건물이 사라졌다. 저 멀리 폐허 한가운데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길가 큰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이 대추를 털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38년 살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셨다고 한다.

해마다 이 나무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동안 이 옷으로 살 때는 대추 한 알조차 팔 수 없었다고 한다. 대추나무 걸친 담장의 집주인 '여편네(할머니 표현)'가 아주 야박하게 굴었다고 한다. 이제 모두 이주하고 임자 없는 대추나무를 공사장에서 굴러다니는 긴 막대기로 힘겹게 털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주 신나게 털어냈다.

이 대추나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손에 가득 자신의 열매를 채워주고 생을 마감했다. 이제 여편네도 할머니도 대추나무도 모두 없다. 이 골목은 이렇게 끝까지 한 토막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속살이 보인다. 빈집이 되면서 온기와 숨결이 사라지자 비바람 맞은 벽은 금이 갔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블록(보로꾸)인 줄 알았는데 벽 안에서 황토색 흙이 흘러내렸다. 흙벽이었다.

당시엔 집터만 마련되면 집 한 채 정도는 똑딱 지었다. 목수와 미장이를 부를 돈은 물론 달리 사용할 건축 자재도 없었다. 인근의 한적한 산마루에서 흙을 퍼왔다. 갈라짐과 터짐을 잡아주기 위해 흙에 짚을 썰어 넣었다.



우물에서 길어 온 물을 부으면서 맨발로 반죽을 했다. 나무틀에 반죽을 넣어 다져 네모나게 찍어낸 후 그늘에 말렸다. 진흙은 돌덩이처럼 단단한 벽돌이 되었다.

혈떡고개에 있던 거의 모든 집의 겉은 시멘트(쎌멘)로 발랐지만 속은 흙벽돌이었다. 오랜 세월 모진 비 비람을 견뎌온 흙벽돌집이 포크레인의 삽날 한방에 그저 황토 바람이 돼 날아가 버렸다.







선조들은 지붕을 ‘집의 위(上)’를 뜻하는 ‘집웅’으로 불렀다. ‘집+웅’이 합쳐진 말이다. 지붕(집웅)이라는 단어가 집에서 나왔으니, 지붕은 집이고 집이 지붕이다. 지붕은 그 아래 거하는 가족을 덮어주고 머물게 해준다. 집의 가장 위, 지붕은 하늘을 이고 있다. 하늘의 기운이 지붕을 통해 집안에 내리고 사람의 온기와 함께 품어진다. 초가, 기와, 루핑, 양철, 함석, 슬레이트, 슬래브 지붕.... 지붕의 형태는 곧 우리 주거 문화의 변천사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가장 먼저 마을의 지붕부터 바꿨다. 그때 등장한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었다. 수십 년 후 우리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고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술 더 떠 부서진 슬레이트 조각을 주워와 기름 잘 흘러내리고 열전도율 높은 성능 좋은 삼겹살 구이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산동네의 적지 않은 집들이 여전히 슬레이트를 다닥다닥 뒤집어쓰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비바람에는 장사 없다. 지붕에 물이 새기 시작한다. 여기 저기 땀뿔을 해보지만, 방수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낡은 기와지붕에 우비를 입힌다. 커다란 천막을 덮고 크고 작은 돌로 단단히 눌러 준다. 요즘에는 강판으로 된 기와가 등장해 이집 저집 빨갛고 파란 새로운 ‘가 발’을 흔하게 썼다.







담과 담
 담과 벽
 벽과 벽
 벽과 방
 방과 방
 방과 창
 창과 창
 그 사이에 골목이 있다.





“어때? 잘 나와?” “좋아. 아니, 아니 조금만 더...” 바람이 심하게 분 다음 날 이집 저집 지붕 위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었다. 골목을 거닐다 보면 양상한 채 장대에 매달려 있는 잠자리처럼 생긴 녹슨 안테나를 보게 된다. 우리는 한때 지붕마다 안테나라는 ‘문명’을 세워놓고 살았다. 이제 그 TV 안테나는 수집해야 할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다.







하얗게 한 시대를 불태웠던 연탄. “김장 못 해도 굶어 죽진 않지만, 연탄은 없으면 얼어 죽는다”라고 했다. 굳이 따져본다면 월동 생존으로는 연탄이 우위에 있었다. 연탄은 밥을 짓고 방을 따듯하게 하는 필수 연료였다. 퇴근길에 그날 밤 땀 연탄을 새끼줄에 껴서 들고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연탄을 올려놓은 빨래판을 머리에 이고 골목길로 들어서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연탄광은 집안의 필수 공간이었다. 집집마다 연탄을 쌓아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부엌 한구석에 쌓아두거나 혹은 마루 밑에 쥘여놓거나 심지어 변소 한편에 놓기도 했다. 아껴 쓰다가 못다 핀 연탄의 모습이 서럽다.



집안에 마땅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면 골목이 대안이였다. 담벼락을 이용해 판자로 만든 연탄광을 만들었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처마 밑에 비닐을 치고 벽에 붙여서 쌓아놓았다. 어느 날 비가 들이쳐서 죽탄이 돼버리기도 했다.

하얗게 한 시대를 불태웠던 연탄은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탄이 ‘월동대책’인 사람들이 있다. 오늘 연탄 한 장의 가격은 대략 900원이다.





8월 중순이면 인천 동네 곳곳에 주단(朱丹)이 길게 깔린다. 경쟁하듯 고추를 말린다. 인천 사람들의 고추 말리기는 좀 유난스럽다. 왜 그럴까. 피난민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에서 내려올 때 소금과 고춧가루를 싸 들고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고추 말리기는 생존이자 본능이다.

문은 우리의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가르는 경계다. 문안의 세상과 문밖의 세상은 천지 차이다. 3중 4중 잠금장치가 있지만, 마지막 잠금장치는 식구들이 모두 귀가한 늦은 밤 아버지가 달는 ‘빗장’이다.







어느 날 오후 ‘연장 좀 다룰 줄’ 아는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들이 빈집의 연탄보일러를 떼어왔다. 젊은 그들은 이런 물건을 처음 본다고 매우 신기해 했다. 한때 연탄의 열기로 지나긴 엄동설한의 겨울을 지낸 세대들에게는 아주 귀한 ‘유물’이다. 지금은 차디찬 녹슨 보일러이지만 언젠가는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돼 많은 이의 추억을 훈훈하게 데워 줄 것이다.





송림6동의 카사블랑카(Casa Blanca, 하얀 집). 한때 인천 동구에서 가장 큰 단독주택이 아니었을까. 70년대에 건축된 4층 집(1층은 상점)인데 멋진 계단으로 각 층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했다. 이 집 아이들은 숨바꼭질도 숨차게 했을 것이다. 현대시장 바로 옆에 있던 이 집도 재개발로 사라졌다.



세면장이 따로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었다. 여름철 마당을 흥건히 적시며 시원하게 등목을 자주 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수도도 월동준비를 해야 했다. 얼지 않게 헨 옷이나 스티로폼으로 뽕뽕 감쌌다.



편지…. 쓰기도 전에 가슴이 떨리던 시절이 있었다. 편지통을 열어보기 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때가 있었다.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설레는 기다림을 가져다주었다.



우편함 속에는 추억이 있다. 한눈에 반한 여학생을 따라가 알아둔 그 집의 우편함에 밤새 쓴 편지를 남몰래 넣어 두었다는 동네 '전설'이 있다. 그 편지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지 애태우던 그 형님들은 모두 안녕하신지.

빈집 우편함에는 온기가 없다. 비에 젖었다가 마르기를 수차례 반복했을 우편물들이 목이 반쯤 꺾인 채 꽃혀 있다. '수취인 불명'이 되어 버린 우편물들이다. 재개발이 확정돼 주민 이주가 시작된 동네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풍경이다.

산동네에 살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제때 변소를 비워내는 일이다. 가파른 고갯길의 산동네는 똥 푸는 아저씨가 외치는 “똥 퍼~”라는 소리를 여간해서는 듣기 어렵다. 기피 지역이었다. 퍼내지 못한 변소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가장들의 얼굴빛은 점점 노랗게 똥 빛으로 변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폭우가 쏟아져야 ‘거사’를 치를 수 있다. 야심한 밤, 비가 올 때 식구들이 모두 동원돼 뒷간의 똥을 퍼서 문밖 골목으로 쏟아버렸다. 속전속결, 릴레이 운반, 증거인멸 등 온갖 수단으로 해치웠다. 똥물은 빗물과 섞여서 바로 사라졌다. 번비 걸린 듯했던 집이 순식간에 쾌변 모드로 바뀌었다. 고마운 폭우였다. 그날 밤 가장은 비로소 발을 뺀고 잤다.



다 ‘때’가 있다. 사람에게만 때가 있는 게 아니다. 건물도 때가 있다. 한창 잘 나가던 목욕탕이 세월의 때를 간직한 채 사라졌다. 헐떡고개 초입에 있던 ‘태양탕’은 한 동네의 그때와 이때를 품고 있다.

예전에 목욕탕은 한 동네의 중요한 편의시설이었다. 목욕탕 주변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 모였던 동네 거점이었다. 이른바 ‘탕(湯)세권’이었다. 목욕하러 왔다가 세탁소에 들러 옷을 맡기고 오랜만에 때를 민 김에 머리까지 광내기 위해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들렀다. 아이 데려온 엄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 시켰고 이왕 나온 거 구멍가게에서 주전부리나 저녁 찬 거리를 사 갔다. 목욕탕 덕분에 주변 가게도 성업을 했다.

목욕은 몸의 때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도 밀어내는 행위다. 누구에게나 털어내고 싶은 ‘때’가 있다. 슬픈 기억, 아쉬움, 걱정거리, 고민... . 목욕만 해도 이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 개운한 맛이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혹은 의지를 다질 때 특히 무언가를 강하게 기원할 때 우리는 목욕을 했다. 동네 목욕탕에서도 얼마든지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할 수 있었다.



이 감시 카메라는 '사람'을 찍고 싶었다
그러나... 24시간 바람만 지나갔다



그들의 장기판에는 일수불퇴(一手不退)의 매정함이 없다.
지나간 모든 수를 얼마든지 다시 물러준다.
딱 하나, 시간만큼은 일수불퇴다.
그렇게 골목에서 그들의 '세월'이 흘러간다.

어느 산동네 휴일 한낮 풍경.
고단함과 처절함도 함께 마르길.





대문 위 작은 꽃밭
새롭게 발견한 아버지의 '영토'



정(情)이 송이송이 맺은
활터마을



우연히 지나다 ‘찰각’

2011년 3월 13일 오전 10시 23분

불, 불이야~



빈방에서 맥 폴린

맥 라이언



스카이라이프도 제주도

늘 하늘을 바라보다



햇빛도 중요했지만
찬바람이 더 무서웠다.



벽화가 뭔가 허전했던 모양이다.

자연이 쓱쓱쓱, 작품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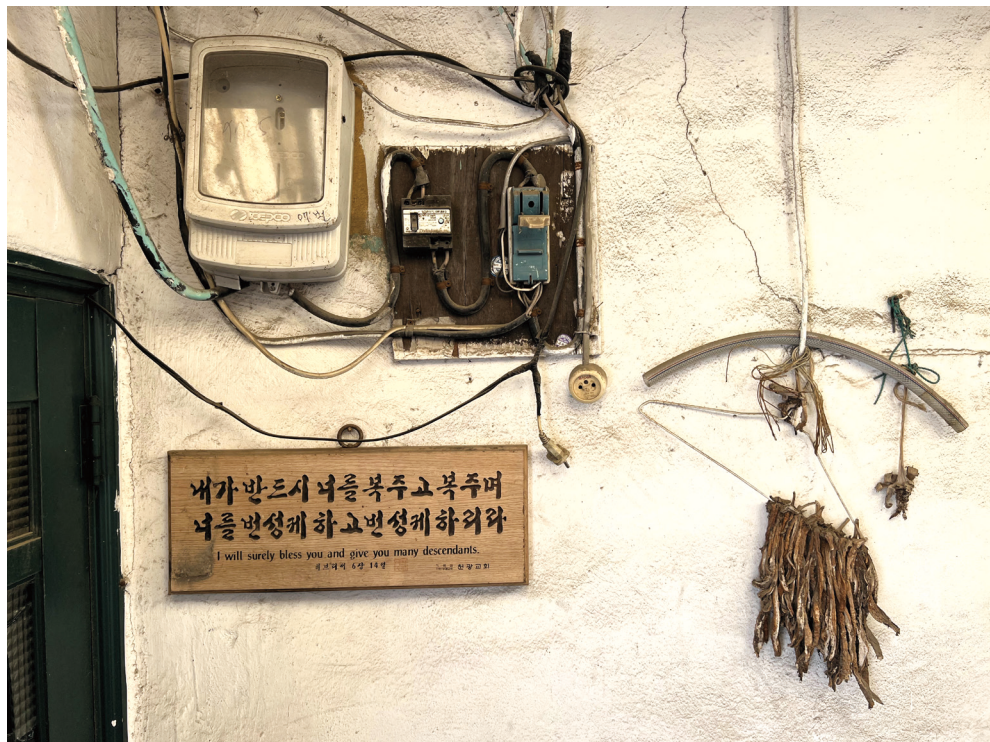


골목길,
한해 한해 더 가파르다



범죄 예방만 할 수 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치안본부(경찰청)라도 옮길 수 있다



내가 만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 6:14)
아멘.



진로 소주병의 인생 2막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골목에서 길잃은 길냥이.

파란 하늘 아까운데
빨래 한 점 더 해서 걸까.





이 집의 레시피 비밀은
모두 이 항아리에 있었다.



어머니의 공간, 부뚜막



철 따라 그림이 바뀌는
액자를 그냥, 걸어둔 채 가셨네요.



비바람 막아주는 주택용 트렌치 코트



후미진 골목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 골목에는 평화”



지붕에서 커가는 흥부의 꿈



날아와 짱 박힌

모퉁이 짱돌



여름철 생존 물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세월을 넘어간
문창호지

해바라기의
허(虛)바라기





17,020원.

문지방에 놓고 간 밀린 세금



목욕탕 굴뚝의 변신
교회 십자가탑





‘그라운드 제로’ 헐떡고개



할아버지의 까치발

놓고 온 집이 못내 아쉽고 궁금하시다



혈떡고개와 이별 인증샷

2022년 9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안녕~





모두 수고했어.

잘 자.



이제 ‘똥고개’라는 지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동구 송림동의 서흥초교 위쪽으로 난 고갯길은 1960년대 말까지 온통 비탈진 배추밭이었다. 농부들은 배추 수확을 하고 난 자리에 웅덩이를 파서 인근 동네의 인분을 퍼 날랐다. 이듬해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그곳이 ‘똥고개’가 되었다.



어쩌면 ‘똥고개’라고 불리기 전에 이미 그곳은 ‘똥(같은)’ 고개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시내 중심지(현재의 중구청 일대)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송림산(수도국산)으로 하나둘 올라왔다.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은 이 산비탈에 슬단지를 걸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갔다. 변변한 집 한 채조차 없는 그곳을 다른 동네 사람들은 하찮은 동네로 취급했다. 똥밭이 되기 전 이미 똥고개가 되었다.



60년대 접어들자 듽성듬성 있던 허름한 집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주택단지 계획을 세웠다. 바로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이 흘렀다. 노는 땅이 아까웠던 사람들이 이곳에 배추를 심고 거름을 모아놔다. 그러면서 진짜 ‘똥고개’가 된 것이다.

겨울이 되면 거름 웅덩이는 얼어붙었다. 땅과 구분이 가질 않았다.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이 ‘지뢰밭’을 용케 피해가며 놀았다. 이웃 동네에서 온 아이들은 비탈길을 가로지르다 웅덩이에 빠지는 난감한 ‘사고’를 심심치 않게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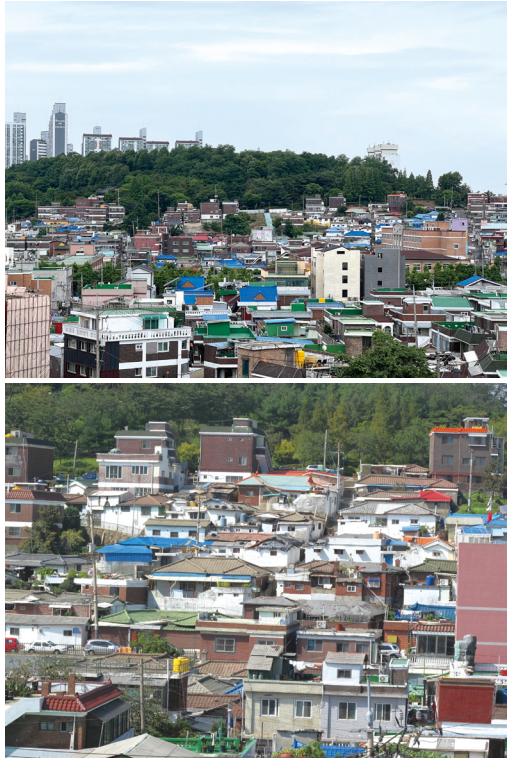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으려니 돌로 쌓은 축대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동네는 여러 층의 축대가 횡(橫)으로 길게 나 있고 아래쪽과 위쪽을 연결하는 시멘트 계단이 가래질한 듯 종(縱)으로 구불구불 나 있다. 골목 곳곳에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있는 축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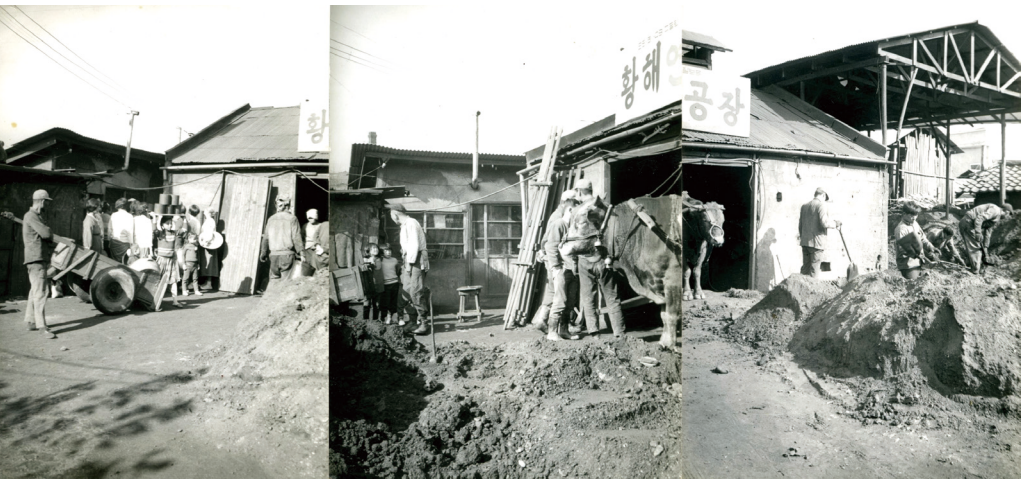
부채산(부처산) 고개와 혈떡(활터)고개에 사는 송림동 사람들은 화수동, 만석동에 있는 공장으로 가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뚝고개 비탈길을 오르내렸다.



일제는 1910년 이 동네의 산꼭대기에 노랑진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를 만들었다. 이 배수지를 관할하는 수도국이 생기면서 이 산은 ‘수도국산’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정작 배수지와 가장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시지 못했다. 수도관은 동네를 지나쳐 개항장으로 뻗어 나갔다. 일제는 그곳에 거주하는 자기 나라 거류민의 식수와 군수공장의 공업용수 그리고 인천항에 정박하는 기선(汽船)에 물을 댈 뿐이었다. 똥고개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물 물을 먹거나 아랫동네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다.



서흥초교 옆 동네는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의 수용소촌이었다. 나중에 골목에 다닥다닥 집들이 일자로 들어섰다. 마치 하모니카 구멍처럼 보인다고 해서 한때 ‘하모니카 주택’이란 별명이 붙었다.



서흥초교 바로 옆에는 1960년대 중반 경에 연탄공장이 하나 있었다. 황해도 피난민 출신 유진성(劉鎭成) 사장은 공장의 이름을 자신의 고향을 따서 ‘황해연탄’으로 지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소촌에 거주하는 황해도 사람들이었다. 빈손으로 내려와 ‘3.8 따라지’라는 천대 속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많은 피난민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강한 의지로 낫설고 물 설은 남한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해 나갔다.





개인 주택의 문은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그 앞에 서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 문이 있는가 하면 웬지 숙연해지는 문도 있다. 철문, 나무문, 돌문, 베니어합판문, 플라스틱문 등 주인장의 형편과 기호에 따라 형태와 느낌이 저마다 다르다. 분명한 것은 아파트 주택의 문보다는 모두 다 멋지다.



불이 나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어 순식간에 10여 채는 잿더미로 변했다. 동네 곳곳에 소방도로가 뚫렸다. 줄지에 지붕과 도로가 같은 높이가 되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지붕 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골목길에서 놀다 손이 푹푹 얼어버리면 함께 달려가는 곳이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에 가장 늦게까지 연기가 피어오르던 집의 뒷벽에 붙은 진흙 굴뚝을 빙 둘러 에워쌌다. 굴뚝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손을 대고 언 손을 녹이곤 했다. 미처 겨울옷을 챙겨 입지 못한 아이는 아예 굴뚝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피아노에만 반음이 있는 게 아니다. 계단에도 반(半) 높이가 있다. 처음 설치할 때만해도 할머니의 무릎 관절은 까딱없었는데... 몇 년 지나 오르내릴 때마다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들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반 계단을 설치했다. 듣자하니 어느 동네에는 계단 에스컬레이터도 있다던데...



이 슈퍼는 ‘일등’이었다.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졌다. 매일 마지막으로 귀가하는 윗집 학생을 보고 나서야 불을 껐다. 집에서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도 일등으로 갖다 놓았다. 무엇보다 동네 갖가지 소문을 ‘일등’으로 알았다. 자판기 커피 맛도 일등이었다



축대를 쌓아 동네를 만들다 보니 앞집의 지붕이 발아래 놓이는 기이한 골목이 생겼다. 졸지에 앞집 지붕은 졸지에 윗집에 딸린 마당이 되었다. 그 위에 운동화도 말리고 생선도 말렸다. 가끔 예쁜 화분도 올려놓고 봄을 즐겼다. 앞집 아줌마는 이것을 알았을까. 알아도 모르는 척 했을까.



건너편 고개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이 동네와 도긴개긴이었던 험벽 고개의 납작한 집들이 철거되고 황토색 빈터로 남았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나니 눈앞에 철옹성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혈떡고개에서 본 해거름녘의 풍고개. 밤이 되면 40층 고층 아파트나 산 동네의 집들 모두, 편안히 잠이 든다.



우루루루... 깔깔깔... 이제 골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그들은 해맑은 ‘단체 스마일’로 출현했다. 골목이 사라졌다. 아이들도 사라졌다.



골목 풍경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봄, 겨울은 물론 비오는 수요일, 눈 내린 토요일 골목이 제각각이다. 아침 햇살에 비친 골목 어귀, 저녁노을에 물든 뒷골목 등이 변화무쌍하게 다가온다.

뚝고개의 골목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깊게 파인 도시의 잔주름이다. 매일 이집 저집의 밥 짓는 냄새와 골목길에 나 앉은 이웃집 변소의 뚝 냄새가 지지고 볶으며 한데 섞였다.



이제 골목은 추억을 지나 ‘역사’로 가고 있다. 한 집, 두 집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온 골목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로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첫 줄이 되었다. 그 골목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

애초에 빈 땅에 말뚝 박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동네는 산 모양대로 뺄뺄하게 형성되었다. 남의 집 마루와 안방을 지나야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형적인 가옥도 생겼다. 사람이 죽어도 관조차 돌릴 수 없는 좁은 골목이 있었다.









집들이 재개발이란 미명 아래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자연사(死)’를 꿈 꿔 보지만 개발은 폐허를 재촉하며 한 동네와 가옥들의 죽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에 녹고 세월에 닳아버린 마을과 집들은 쓸모없고 보기 싫다고 ‘불량’이란 딱지를 붙여 없애버리고 있다.

이른바 한국건축학개론에서도 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집들, 그리고 그 집을 구성하고 있던 대문, 부엌, (연탄)광, 층계, 변소, 마당, 옥상, 담벼락, 마루, 방….

그렇게 사라진 집들은 유사한 가옥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카메라에 담았다.















할 수 있다면 저 벽을 통째로 떼어내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네 병이 대한민국 인천에서는 강력한 ‘세콰’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복잡한 전깃줄 만큼이나 복잡다단한 삶을 산 그들.



빈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싹틔줄처럼 생긴 검침 바늘이 멈추고 전기 계량기가 적출(摘出) 되었다는 것.



서로 닮아가는 부부 문패, 해로(偕老)했다는 증표.

동네 초입에 자리 잡은 쌀가게와 세탁소는 목욕탕, 연탄가게, 이발소, 전파상과 함께 동네의 필수 상점이었다.





이 동네에 피난민들이 많이 사는 것과 관련이 있나...
매년 유월이 되면 그 전쟁을 “잊지 말자”고 외친다.



예전에는 하얀 벽은 아이들의 낙서장이었다. 이제 골목에는 낙서할 아이들도 없다. 곧 이주할 사람들이 필요한 용달 이삭집센터 번호만 적혀 있다. 번호는 참 좋다.



어찌다 엄지척.



이왕 이주하는 거, 행운이 함께 하시길.



늘 이곳을 통과할 때마다 음식 냄새가 발걸음을 잡았다.
고기 먹을까, 면 먹을까.



예전에는 문패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의 함자(銜字) 정도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 앞집에 사는 강아지 이름만 안다.



‘맛따라 천리’ 중국집. 매일 달콤한 춘장 볶는 냄새가 천리 넘어 삼천리까지 갔다.



지붕을 보면 톱고개 동네에서 가장 어르신일 것 같은 한옥.
사방팔방으로 빌라가 들어섰어도 꼬장꼬장한 기품은 끝까지 갔다. “에헴~”



한동안 동네를 주름잡던 세탁소. 다른 곳에 가서
도 주름 잡는다는 ‘일진’이 되시길.



해바라기는 끌어왔는데, 해가 아직 따라오질 못했네.

편지 올 일은 없다. 세금고지서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문패’가 필요했다.
이주를 앞두고 문패를 마련하느니 벽에 쓱쓱 이름을 적었다. 오랜만에 마
누라 이름을 써 보게 되었다.





동네의 공동 시설 중에 ‘평상(平床)’이라는 게 있었다. 그 위에서 함께 밥도 먹고 아이들은 소꿉장난도 했다. 골목 입구에서 장기 한판 두는 것도 평상의 평상시 모습이었다. 장기 친구 김 씨는 새 동네에서 잘살고 있는지. 김 씨 장기가 외통수에 걸렸을 때 한 수 물러줄 걸 후회된다.



길냥이들이 가끔 노상(路上) 객사를 한다. 자동차도 천천히, 길
냥이도 천천히 좌우를 살펴보고 길을 건너자.



초인종(招人鐘). 사람을 부르는 종이다. 사내 아이들은 ‘초인종 놀이’를 하곤 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36계 줄행랑을 쳤다. 좋아하던 소녀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는 심장이 종을 쳤다.



서울에도 ‘송현동’이 있다. 금싸라기 땅이다. 인천의 송현동과는 여러모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도 인천 송현동이 더 좋다. 나의 고향 송현동.

포토에세이

동구의 헐떡고개와 뚝고개 흔적

두 리사의 그려 그 풍경

인쇄일 2024년 12월 6일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발행인 조장환

발행처 화도진문화원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22번길 2

전화 032-777-8957

팩스 032-777-8958

제작·디자인 (주)글소리

ISBN 979-11-965856-6-2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977138-5-9